

산코지 절

가모세야마 산 중턱에 있는 산코지 절은 교토 분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왼쪽에는 히에이잔 산과 기타야마 산, 앞쪽에는 히가시야마 산이 연이어 있고,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남쪽의 우지시와 기즈가와시까지 바라다볼 수 있으며, 주변의 단풍나무가 붉은색과 주황색으로 물드는 가을에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. 또한 산코지 절 옆에는 요시미네데라 절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여행으로 이 두 곳의 절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.

다양한 불교의 가르침이 전해진 장소

이 절의 기원은 1074 년에 천태종 승려인 겐산(983~1099 년)이 암자를 짓고, 기타오오조인 절이라고 이름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. 1213 년, 정토종 세이잔파의 창시자 쇼쿠(1177~1247 년)가 염불(아미타여래의 이름을 외는 것) 도장으로서 다시 부흥시켰습니다. 쇼쿠는 사원 뒤에 있는 산이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불구(佛具)인 삼고저(三鈷杵)와 닮은 데서 산코지(三鈷寺) 절로 개명했습니다. 1951 년에 천태종에서 서산종(西山宗)의 본산으로서 독립하여 천태종·진언종·율종·정토종, 네 종파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.

본당과 그 보물

현재 본래의 본존인 불안(佛眼)만다라는 나라 국립박물관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금색부동명왕상을 본존으로 모시고 있습니다. 이 불상은 본당을 지금의 장소로 이축하기 전에 불안만다라 앞에 선 자세로 모셔져 있었습니다. 그 외에 삼고저 모양이 조각된 대좌에 앉은 아미타여래, 쇼토쿠 태자(574~622 년), 겐산, 그리고 진언종의 개조인 구카이(774~835 년)의 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. 본당 동쪽의 게타이묘에는 쇼쿠의 상이 안치되어 있는데, 그 높은 대좌 아래에는 대좌를 마주보았을 때 오른쪽 오른탑에 쇼쿠, 왼쪽 오른탑에는 우쓰노미야 렌쇼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.